

# 『霧峯集』未登載 詩文 研究

李權宰\*

## 〈차례〉

- I. 序說
- II. 『霧峯集』未登載 詩文의 現況
- III. 『霧峯集』未登載 詩文의 主題的 性向
  - 1. 現實的 葛藤과 愛民精神
  - 2. 道學的 志氣와 脫俗意趣
  - 3. 宿命的 情操와 自愧意識
- IV. 結語

## I. 序說

霧峯 高敬命(1533 ~ 1592)의 未登載 詩文에 대해서는 즐고, 「제봉의 시문학 연구」<sup>1)</sup>에서 소략하게나마 처음 언급하였고, 최근 박은숙이 「『霧峯手稿』에 대한 고찰」<sup>2)</sup>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봉의 시문들을 소개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本稿에서는 제봉의 未登載 詩文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 주제적 성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제봉문학의 전반적 이해를 꾀하고자한다. 『霧峯集』未登載 詩文은 제봉의 문집인 『霧峯集』과 임란시 절의를 받친 제봉가의 격문 등이 수록된 『正氣錄』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으로 현전하는 모든 작품을 이르는 것이다. 『霧峯集』未登載 詩文은 제봉이 벗들과 수창하거나 벗들에게 남겨준 작품으로서 다른 이의 문집이나 문헌에 실려 있는 작품들과 제봉수고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제봉 문학의 연구는 주로 『霧峯集』 소재 작품들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온 탓에 제봉 문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sup>3)</sup> 이에 본고에서 『霧峯集』未登載 詩文에 대해 전반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제봉 문학의 세계가 온전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 본다.

## II. 『霧峯集』未登載 詩文의 現況

\* (사)대한민국의학연구소

- 1) 이권재, 「제봉 고경명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2002.
- 2) 박은숙, 「『霧峯手稿』에 대한 고찰」, 『16세기 호남한시연구』, 월인, 2004.
- 3) 朴俊圭, 「霧峯 高敬命과 息影亭 題詠」, 『春岡 柳在泳 博士 華甲紀念論叢』, 1992.  
李鍾燦, 「高敬命論」, 『朝鮮朝漢詩作家論』, 동악어문학회, 1993.  
朴銀淑, 「高敬命의 詩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9.  
李權宰, 「霧峯 高敬命의 詩文學 研究」, 朝鮮大 博士學位論文, 2002.

제봉은 詩와 文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봉의 시문들은 시를 중심한 운문이 1,381수 산문이 22편으로 총 작품편수는 1,403편이다. 이 작품들을 소재별로 다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문집인 『霧峯集』과 『正氣錄』에 소개한 시문은 총 1,269편으로 詩는 총 797제 1,244수이고, 여기에 律賦 3수와 銘 1수를 더하면 韻文의 작품 총수는 801제 1,248수이며, 산문은 21편이다. 둘째, 제봉이 벗들과 수창하거나 벗들에게 남겨준 작품으로서 梁子淳 一家의 사실들을 모은 『瀟灑園事實』을 비롯한 다른 이의 문집이나 문헌들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서 본인이 조사하여 발굴한 것들이 총 60편으로 시 40제 59수와 문 1편이 있다.<sup>4)</sup> 셋째, 최근 박은숙의 『霧峯手稿』에 대한 고찰<sup>5)</sup>에 의거 제봉의 手筆로 시 80제 116수가 初脫된 詩稿로 발견되었다. 이 중 『霧峯集』에 수록된 31제 42수를 제외하면 49제 74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sup>5)</sup>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제봉의 시문은 총 1,403편인데 『霧峯集』 및 『正氣錄』에 등재된 시문의 수는 1,269수이고 『霧峯集』 未登載 詩文의 수는 134편으로 『霧峯集』 등재시문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霧峯의 未登載 詩文 所載別 型式別 現況<sup>6)</sup>

區分	文	四言 排律	五言 絕句	五言 聯句	五言 律詩	五言 排律	七言 絕句	七言 律詩	七言 排律	其他	計	
											題數	首數
『霧峯手稿』	題數	1	13		16	3	11	11	1	1	49	74
	首數	1	23		20	3	12	13	1	1		
『瀟灑園事實』	題數	(1)	6		3	1	11	2			23	41
	首數	(1)	12		3	1	19	6				
『棲霞遺稿』	題數		1				2				3	3
	首數		1				2					
『霧峯年譜』	題數		1				1	1			3	3
	首數		1				1	1				
『國朝詩散』	題數				1		1				2	2
	首數				1		1					
『健齋集』	題數				1						1	2
	首數				2							
『土亭遺稿』	題數						1				1	1
	首數						1					
『孤竹集』	題數						1				1	1
	首數						1					
『白鹿遺稿』	題數			1							1	1
	首數			1								
『冲庵集』	題數				1						1	1
	首數				1							
『國譯霧峯集』	題數							1			1	1
	首數							1				
玄湖瑣談	題數							1			1	1
	首數							1				
亂中雜錄	題數									1	1	1
	首數									1		
臨淸閣宗家建物	題數							1			1	1
	首數							1				
計	題數	1	21	1	22	3	28	17	1	2	89	133
	首數	1	37	1	27	3	37	24	1	2		

4) 拙稿, 『제봉 고경명의 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2002, 50쪽, 165쪽.

5) 박은숙, 『霧峯手稿』에 대한 고찰, 『16세기 호남한시연구』, 월인, 2004.

K C I

---

6) 위 표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은 『난중잡록』의 五言二句와 『霧峯手稿』의 五言六句를 나타낸 것이다. ( )속의 숫자는 문의 편수이다.

『霧峯集』未登載 詩文의 所載別, 型式別 현황을 요약하면 위 표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봉의 未登載 詩文은 시 133수와 문 1편이다. 이 중에 절구가 74수로 가장 많고 율시가 51수로 그 다음이며 오언과 칠언을 고루 창작하였다. 또한 장형의 시가 사언, 오언, 칠언으로 고루 지어졌음도 확인할 수 있다.

『霧峯集』未登載 詩文이 게재된 출전은 현재 모두 13종에 달하고 있다. 제봉의 未登載 詩文의 현황을 출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霧峯手稿』에 74수, 『霧峯年譜』에 3수, 『國譯霧峯全書』霧峯集 五에 1수가 실려 있다. 둘째, 제봉이 절친하게 지냈던 梁子淳 一家의 『瀟灑園事實』에서 가장 많은 시 41수와 문 1편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金成遠의 『棲霞遺稿』에 3수, 崔慶昌의 『孤竹集』에 1수, 辛應時의 『白麓遺稿』에 1수, 金千鎰의 『健齋集』에 2수, 金淨의 『冲庵集』에 1수, 許筠의 『國朝詩珊』에 2수, 任璟의 『玄湖瑣談』에 鵝溪, 白麓, 龜峯과 공동으로 지은 聯句 1수, 조경남의 『亂中雜錄』에 敵의 投書 ‘野雲’을 풀이한 五言二句 1수가 각각 실려 있다. 셋째, 안동에 소재한 臨淸閣에 扁額된 七言律詩 1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들이 『霧峯集』의 편찬과정에서 미등재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아들 용후가 부친이 남겨준 시권 중에서 ‘5卷만을 편찬하라.’<sup>7)</sup>는 명을 존중하여, 보유했던 유고 중에서도 많은 양이 이항복에 의해 刪削되었고, 산삭되어진 많은 양의 유고가 개인적으로 소장되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유고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추정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제봉이 서거한지 25년이 지난 1617년에서야 『霧峯集』이 간행되어 그 시기가 오래되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지낸 朝鮮의 文壇에 霧峯이 交遊했던 문인들 중 일부가 유명을 달리한 뒤여서 續集과 遺集이 발간될 때에도 더 보충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셋째로는 交遊했던 문인들의 문집이 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수의 유고가 수집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소쇄원사실』이나 『서하유고』 등은 후인의 필사본에 의거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霧峯의 많은 유고들이 앞으로 더 발견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霧峯이 交遊한 문인들의 문집을 자세히 조사해 나아가게 되면 霧峯의 작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송강집』에 <題靜虛軸次霧峯韻(松續1)-190>이 전해 오는데 靜虛에게 준 이 시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추론은 가능하다. 또한 『국역제봉전서』의 연보에 원문이 없는 시편들이 게재된 것은 개인 소장의 시고가 존재하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臨淸閣의 편액처럼 제봉의 시가 누정에 현액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朝鮮 中期에 있었던 樓亭들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견된 『霧峯手稿』의 116수중 42수만이 『霧峯集』에 등재되고 나머지 74수는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霧峯手稿』본을 모두 찾게 된다면 산삭되기 전의 시문 전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 Ⅲ. 『霧峯集』未登載 詩文의 主題的 性向

7) 李恒福, 『白沙集』, <苔軒集序>, 先君子嘗有言曰 詩雖多 出而行世者 毋過四五卷 其可 願從先志.

霧峯의 문학은 다양한 선배시인들을 학습함으로써 같고 닮여진 정제된 수준 높은 작품이 많다. 제봉은 魏晉南北朝를 연결하는 東晉末 宋初의 대시인 陶淵明(365~427)의 주옥같은 田園詩를 사모하였고, 저 盛唐時代의 호방과 표일, 청신, 평담의 李白과 예술적 형식과 기교의 杜甫를 존송하였다. 또한 王維와 孟浩然을 이어받은 中唐時代의 大曆十才子인 錢起, 崔峒, 皇甫曾 등을 비롯한 송대의 韋應物 劉長卿 黃山谷 등의 山水田園詩를 익혔으며, 蘇軾의 호방한 기풍과 다방면의 대가들을 배우려한 태도를 본받았다. 이러한 증거는 그의 작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시작을 통하여 대가들의 시를 열람하고 차운한 次韻詩와 그들의 명구를 집구하여 만든 集句詩에서 그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도달되는 점은 당시의 엄격한 형식미를 모범으로 보인 두보의 시격을 존중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작품 전편이 고시보다는 近體詩에 비중을 두고 창작하였다.

또한 16세기 전후는 湖南 중심의 문인들이 朝鮮 中期의 文風을 주도하였다. 訥齋 朴祥(1474~1530)을 위시한 石川 林億齡(1496~1568), 錦湖 林亨秀(1504~1547), 河西 金麟厚(1510~1560), 眉岩 柳希春(1513~1577), 松川 梁應鼎(1519~1581), 思菴 朴淳(1523~1589), 高峯 奇大升(1527~1572), 霧峯 高敬命(1533~1592), 松江 鄭澈(1536~1593), 玉峯 白光勳(1537~1582), 孤竹 崔慶昌(1539~1583), 白湖 林悌(1549~1587)로 이어지는 걸출한 인재들 사이에서 제봉은 선배들의 문풍을 이어 받아 후배들에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봉의 작품들 속에는 기교적 특이성과 주제적 성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봉이 남긴 작품 중 『霧峯集』에 등재되지 않고 세상에 전해지는 未登載 詩文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엿보고자 한다.

『霧峯集』未登載 詩文의 대체적 성향은 교유시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만 특이할 점은 다수의 輓詩가 발견되는 점이며, 이 만시들 중에 여성을 애도하는 만시가 많다는 것도 그 한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未登載 詩文의 주제적 성향을 세 가지 관점으로 압축하여 現實的 葛藤과 愛民精神, 道學的 志氣와 脫俗意趣, 宿命的 情操와 自愧意識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 1. 現實的 葛藤과 愛民精神

『霧峯集』未登載 詩文에서는 불만과 한 그리고 반성을 통한 내면적 갈등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불만과 한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나이 31세 되던 1563년 李樛 일파의 실각에 맞물려 門外出送 후 20여성상을 신원 받지 못한 현실이 그의 문학 속에 배여 들게 된 것이다. 다음은 취중에 仲明의 부채에 써 준 시이다.

曾忝春坊客 나도 일찍이 춘방의 객이 되었었기에  
幽衷繁順懷 속마음으로는 순회묘 생각이 자주 난다네.  
敬陵風雨夜 경릉에 비바람이 치던 밤에는  
誰罄瓣香齋 누가 그 재계와 분향의 일을 다하겠는가!  
<醉中書仲明扇面><sup>8)</sup>

8) 『瀟灑園事實』卷之七.

스승들이 떠난 자리에는 벗들만 남아 있다. 벗들은 젊었고, 젊었으니 아무래도 세상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霽峯은 스승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과거의 영화롭던 京職時節의 회상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벗들이 출사하게 되자 다시금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된다. 조정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처지는 아직 伸冤되지도 않았는데 벗들은 벼슬길에 오른다 한다. 중명은 梁子淳인데, 이 당시 敬陵 參奉이 되었다. 順懷廟가 그 곁에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參奉이 거기까지 겸해서 맡았다. 순회묘는 조선 제13대 임금 명종과 인순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순회세자와 부인 공희빈을 모신 사당이다. 霽峯 자신도 지난날 講院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순회세자의 은총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옛적의 사실이 느껴지고 생각나기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마침내 이 시를 써 仲明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1577년 宣祖 10년의 일이다. 그러나 향인이 되어 버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양중명이 방백(方伯)의 천장(薦章)으로 인해 조정의 특별히 목청진 참봉을 제수한데 대하여 지은 시이다.

乘傳西遊已十年  마차 타고 서쪽을 떠난 지 이미 십 년이 되었어도  
 天摩蒼翠尙依然  천마산은 푸르고 푸르러 아직 옛 그대로 이리라  
 中郎洞古霞猶紫  중랑의 옛 마을에 자색 노을 끼어있고  
 孺子潭空花自妍  유자의 섬 공지에 예쁜 꽃 피어있네  
 跡逐鴻泥成楚越  홍이의 자취 따라 초월을 이루고  
 魂隨蝶夢繞山川  호접의 꿈을 좇아 산천을 맴도네  
 同年七子如相問  일곱 분 동년 친구가 만일에 나를 묻거든  
 憂患餘生雪滿顛  근심 속에 남은 생이 머리는 백발이라 하계  
 <仲明以方伯薦章 朝廷特授穆清殿參奉>9)

穆清殿(목청전)은 개성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옛집으로 태종이 태조의 영정을 모시게 하였다. 임란 때 불타서 숙종조에 각을 중건하였다. 중명이 이곳 참봉으로 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지난날 중앙 정계에 함께 진출했던 동년들에 대해 궁금함과 아울러 부끄러움 등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회한과 절망감이 컸을 것이다. 그들과 헤어진 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들이 나의 소식을 묻거든 근심으로 일생을 보내고 나니 백발만 남았더라고 전하라 한 것은 자신의 현실적 굴레를 벗어던지고자한 강열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로 돌아가는 관리들을 전송하면서 그의 심정은 극도에 다다르고 있다. 다음은 취중에 써서 함열 현감 이덕로에게 준 시이다.

病添雙鬢雪  병든 이 몸 양쪽 귀밑머리 하얗게 무성한데  
 愁化寸腸灰  근심으로 속을 태워 재가 되어 버렸네.  
 滴盡平生淚  평생을 눈물로 다 적시었으니  
 臨別更一杯  이별에 임하여 거듭 술만 마시네.  
 <馬池醉題李成悅德老便面>10)

9) 『瀟灑園事實』 卷之七.

10) 『霽峯手稿』.

속은 애가 타다 못해 재가 되어 버리고 이별에 임해도 흘릴 눈물이 없어 다만 술만 마셔야 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심리변화는 경직에서 물러난 후 대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중앙관료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현실을 목도하면서 자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러면서도 향수처럼 지난날의 화려했던 자신의 추억을 되살리곤 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위정자의 위치에 설 수 만 있다면 무엇인가 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다짐도 보인다. 제봉은 향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위정자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정황들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민중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민중 중심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스승인 宋純에게 받은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송순의 경우 이러한 성품과 사상은 젊은 시절에 창작했던 시들에 잘 드러나 있다. <聞丐歌>, <啄木歎>, <病鶴> 등이 그것이다. 시조 <賞春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霧峯이 이러한 宋純의 민중 중심의 애민의식을 그의 시에서도 실현시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사신에게 준 시이다. 34구로 이루어진 오언배율인데 그 일부를 보기로 한다.

今歲修軍籍 今年 軍적을 개수한다고  
 朝家遣使臣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왔네.  
 廟籌應不易 묘당의 계획이란 그리 쉽지 않을 테니  
 德意更誰遵 임금의 덕의는 다시 누가 따를 것인가.  
 縹緗皆登簿 포대기에 싣 어린것도 명부에 올리니  
 傭兒亦竄身 머슴의 아이들은 몸을 숨기네.  
 寓農誠有術 부치매 진실로 방법이 있으련만  
 謀國豈無人 나라를 도모함에 어찌 사람이 없는가.  
 嘯聚萑苻間 약초들을 모으라 외치는 소리 떠들썩하더니  
 誅求膽石猶 귀한 약재 토색질 하느라 으르렁대네.  
 君歸話南事 그대 돌아가거든 남쪽의 현실 바로 말하게  
 蒙袂泣淚民 백성들의 옷소매가 눈물에 다 적시었더라고.  
 <贈鄭士慎>11)

군적을 개수한다고 조정에서 사람들이 와서 피폐한 시골에 한번 커다란 소동이 벌어진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조정에서 하는 일이란 분명 명분을 세워 일을 도모하지만 임금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백성들을 진실로 구제할 관리는 드물다. 포대기에 싣 어린 것 까지도 군적의 명부에 올리려 드는 관리들이고 보면 임금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관리들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사를 짓는 것도 무엇을 우선해야만 할 방법이 있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이토록 어두울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한다. 백성을 우선 구제하여야 고을이 살지고 나라가 부유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를 뼈저리게 탄식하고 있다. 약초들을 모으라고 외치더니만 석담(石膽) 같은 귀한 약재는 어디다 감추었냐고 으르렁대니 백성들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급기야 그들의 소매는 항상 젖어 있다. 이런 현실을 중앙 조정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그대 돌아가거든 남쪽의 현실 바

11) 『霧峯手稿』.

로 말하여 임금의 바른 정치가 백성들에게 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탄원을 적은 것이다.

이러한 민중 중심의 애민의식은 현실 관리들의 작폐를 제3자적 시각 내지는 백성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관리와 조정을 향한 백성들의 원성을 목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가 신원되기만 하면 틀림없이 백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정치를 하리라는 다짐이자 결의였다 할 것이다.

## 2. 道學的 志氣와 脫俗意趣

霽峯의 문학활동은 자성의 의경을 잔잔히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세계를 안으로 관조하여 성취된 자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내밀한 자신의 의식은 주위를 感動하게 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梁山甫와 金麟厚 그리고 奇大升과의 교제에서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瀟灑園의 주인 梁山甫와 詩壇의 座長이었던 金麟厚는 霽峯이 받드는 스승들이다. 또한 양산보의 두 자제 梁子澗과 梁子淳 형제는 霽峯과 도의교를 맺은 사이이다. 이들과 근접한 文인들이 소쇄원에 모여 도의를 두터이 하는 가운데 당대의 문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瀟灑園詩壇을 형성함으로써 樓亭詩壇의 濫觴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瀟灑園詩壇은 처음부터 뛰어난 文風을 소유하고서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근본 취향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한 성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직 道學과 의리를 중시하고 강상을 바루는 근본을 효에 의탁한 바였다. 梁山甫가 <孝賦>를 짓고 이 <孝賦>를 등사하여 인근 고을의 백성들을 교화한 뜻이 그렇다. 霽峯이 瀟灑園 詩壇을 중심으로 도학적 연원을 구가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작품들이 未登載 詩文에 많이 존재한다.

다음 시는 양계명이 시경과 서경의 정문을 베껴 쓰고 그 책머리에 제목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써 준 시이다.

聖賢成訓在 성현들의 교훈이 다 갖추어 있으니  
誦讀貴浸潛 암송하고 읽더라도 귀중한 것은 침잠함이라  
字字無虛過 글자마다 헛되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通來萬理蕪 모든 이치의 어두운 곳을 통해야 하네

大學規模定 대학은 그 규모가 정해있으나  
須將語孟參 모름지기 논어와 맹자도 참고 해야하네  
周詩多感激 주남 시는 감격됨이 많아  
吟詠性情涵 읊고 읽을 적마다 성정이 함양되네

三聖相傳授 세 분 성인이 서로 전해 주시길  
惟言執厥中 오직 그 중도를 잡아라 말씀하셨네  
危微精一上 위태롭고 은미함을 정일하게 한 위에  
進進益加功 정진하고 정진하여 더욱더 공력을 더해야 하리



飽煖憂禽獸 배부르고 따뜻하기만 하면 금수와 같을까 걱정되어  
 司徒五教敷 사도(司徒)로 하여금 다섯 가지 가르침을 베풀었네  
 工夫在學問 공부는 배우고 묻는데 있으니  
 氣質化柔愚 유약하고 어리석은 기질도 변화되리라  
 <梁季明求寫詩書正文題目書此以贈><sup>12)</sup>

첫 수에서는 학문에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벗에게 권고하는 정성이 깃들어 있다. 이는 벗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대하여도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성현들의 교훈을 암송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침잠함으로써 이치를 체인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부터는 경서에 침잠해 가서 얻어야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먼저 학문의 규모가 정립되어진 『대학』을 통하여 기본 틀을 엮어서 『논어』와 『맹자』로 그 틀을 보충하고 『주남』 시를 통하여 성정을 함양하라 했다. 그리고 『서경』을 통하여 세 분 성인이 서로 전해 주신 오직 그 중도를 잡아라 한 말씀으로 위태롭고 은미함을 정일하게 한 위에 정진하고 정진하여 더욱더 공력을 배가해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데 있으니 사람으로서 금수 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지름길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행해야 하며 어리석고 유약한 기질을 변화시켜 나아가서 도를 완성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국조시산』에 소개 된 고봉 기대승에게 준 시이다.

異代人私淑 시대가 다른 사람끼리 사제의 의를 맺고  
 淵源溯考亭 고정을 소급하여 연원을 삼았도다  
 靑丘鍾秀氣 청구에 빼어난 정기 모이고  
 南斗繞文星 남두에 문창성 돌렸어라  
 身遠淹漳浦 몸은 장포처럼 먼 곳에 머물러 있지만  
 名高動漢廷 그 명성 높아 한정에 동하였네  
 蒼生望已久 이 창생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러르며  
 飛詔下天扈 천경으로부터 명령 내리기 만 기다린다오  
 <呈高峰奇大升><sup>13)</sup>

고봉 기대승(1527 ~ 1572)은 퇴계와 함께 조선 유학의 흐름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 시는 고봉과 교유는 도학의 성취를 위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 제봉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시대가 다른 사람끼리 사제의 의를 맺고 주자의 성리학으로 연원을 삼아 조선의 빼어난 정기를 이어 받아 경지를 구가하는 고봉은 곧 제봉 자신의 목표이자 소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조정으로부터 명령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기치인의 도학적 실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제봉은 이처럼 스승들로부터 물려받은 道學的 詩風을 간직한 채 자신의 경지를 다듬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훗날 조정으로부터 敍用이 되고 벼슬에 나아갔지만 이 때의 道學的 氣風은 그를 백성의 편에 서게 하였고, 청렴한 목민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경륜을 펴으로써 스승

12) 『瀟灑園事實』 卷之九.

13) 『國朝詩刪』.

들의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 끝내 국난을 당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산화한 霧峯은 스승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를 구축함으로써 도학적 지기를 실현하였다 할 것이다.

제봉은 향리에 칩거해 있는 동안 자성과 탄식을 통해 갈등하는 심리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통한과 고뇌는 세월을 거둬하면서 승화되어 안정을 찾게 되는데 이는 내면적 갈등과 좌절 그리고 체념의 단계를 넘어 내면적 성찰과 성숙 그리고 자득의 경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제봉의 未登載 詩文의 전반적인 흐름은 탈속의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풍의 영향은 息影亭詩壇의 林億齡에게 연유한 측면도 있다. 金成遠, 高敬命, 鄭澈 등을 아울러 星山四仙이라 이름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곧 息影亭은 霧峯에 있어서 스승으로 의지할 만한 石川이 쉬는 곳ियो, 자신의 知友로 여길만한 棲霞堂의 거처이며, 松江이 자주 머무는 곳이기애 자신도 언제나처럼 세상에 찌들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요, 사유의 공간이다. 그의 다음 시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次息影亭韻>의 一節이다.

緩吟從散策 느리게 읊조리며 산책하다가  
隨意更登亭 뜻을 따라 다시 정자로 오르네.  
玉軫含秋雨 옥진산 기슭에 가을비 묻어 있는데  
紋楸落曙星 문추령 꼭대기에 샛별이 떨어지네.  
披霞晞綠髮 안개를 헤치고 푸른 머리 말리면서  
滴露寫黃庭 이슬을 적시어 황정경이나 베껴볼까.  
自覺塵蹤斷 세속의 자취 끊어진 줄을 스스로 깨달으니  
巖扉夜不扃 바위문은 밤이 되어도 빗장을 걸지 않네.  
<次息影亭韻><sup>14)</sup>

공연히 시상이 떠오르면 산책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길이 머무는 곳이 바로 息影亭이다. 그러나 세속의 저만치 도사리고 있는 미련은 玉軫山 기슭의 가을비처럼 저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묻어오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번뇌는 문추령 꼭대기에 샛별이 걸릴 때까지 계속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자아를 발견하고,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안개에 젖은 푸르른 머리를 풀어 말리고 나면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된다. 『黃庭經』을 외우며 神仙의 術을 연마하면 세속의 번뇌는 이미 사라지고, 얽매이던 마음도 어느덧 꺼릴 것이 없어지니 巖扉에 빗장을 걸지 않는다. 巖扉는 巖穴의 문이다. 巖穴은 俗世를 떠나 깊은 山中에 머무는 賢者의 居處이다. 霧峯이 息影亭에 오르면 자신이 스스로 산중에 은거하는 현자가 된다. 그래서 息影亭은 신선의 거처이고 안식처가 된다. 식영정은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상쾌함 그 자체로써, 멀리서 생각만 하여도 저절로 전율을 느낀다. 연못과 우거진 나무숲, 새 모시옷과 시원한 대자리는 뜨거운 여름을 잊게 하는 필요조건이요, 息影亭의 唱和가 충분조건인 것이다. 이것이 霧峯의 삶에 활력을 만들어 낸다. 이로부터 제봉은 탈속적 세계에 머물며 여유를 갖는다. 다음 시는 매대(梅臺)에서 달을 맞으면서 중명(仲明)의 청에 의해 지은 것이다.

平生水石氷霜契 평생토록 물과 돌을 변치 않는 벗으로 삼고

14) 『霧峯集』 卷之三.

羞對香腮與粉胸 향과 분으로 치장한 모습 대하기를 부끄러워하네  
 賴有姮娥知此意 향아가 이 뜻을 알리라 믿고  
 不嫌搖落度千峰 요락도 싫어하지 않고 일천 봉우리를 헤아리네  
 <梅臺邀月仲明請賦用前韻><sup>15)</sup>

때는 초가을이었다. 가을 달밤의 시원스런 기운을 만끽하면서 세속의 번잡함을 초탈하려 한다. 평생 수석을 벗삼아 변치 않는 지조를 다지며 진실을 감추고 겉을 꾸미는 따위는 이제 부끄러운 일일뿐이다. 이제 세상의 일 따위는 하찮은 것일 뿐 관심 밖이 되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완상하는 여유만이 제봉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어떤 유혹도 싫어하는 제봉은 자연과 일체화된 모습으로 거듭난다. 다음은 瀟灑園에서의 일상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는 絕句 한 편이다.

日高睡初起 해가 높이 뜨도록 자고 일어나니  
 嵐翠濕衣巾 푸른 안개 옷을 적시었고  
 知有幽人過 알고 나니 여기를 지난 隱者들은  
 題詩滿竹身 대나무 가득히 시를 남기었도다.  
 <瀟灑園><sup>16)</sup>

霧峯이 瀟灑園에서 밤새도록 知己之友들과 술을 마시며 시를 읊조리다가 늦게야 잠이 들었을 것이다. 중천에 해 오르도록 취하였다가 겨우 일어나 보니 아직도 안개 낀 대숲 어우러진 瀟灑園이다. 많은 스승들의 발자취는 온데 간데 없으나 그분들이 남기신 名文의 시구는 대나무 줄기마다 珠簾처럼 가득 걸려 있는 듯하다. 분위기는 속세와 멀고 가신 스승들의 자취를 찾아 헤매는 현실은 분명 자신도 스승들을 닮으리라는 각오이다.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瀟灑園은 정녕 의지처요, 선망의 경지이다. 瀟灑園에 놀며 絕韻을 짓고 또 깨어나서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한편을 지었다는 다음 시는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脫俗的 詩世界的 일단을 잘 말해 주고 있다.

迢迢瀟灑溪 이득히 먼 소쇄원의 계곡 물은  
 遠自靈芝發 멀리 靈芝로부터 내려오는데  
 深思一筇竹 한 대지팡이를 짚고 깊이 생각하매  
 嘯入青蘿月 푸른 松蘿 위에 걸린 달을 보며 한숨짓는다.

量憶小亭秋 자그마한 정자 위에 가을을 연상하니  
 無端幽興發 한없이 그윽한 흥취 솟아오른다.  
 濯髮巖上流 바위틈에 흐르는 물로 머리를 감고  
 晞之石壇月 돌계단 위에서 달빛에 말리도다.

處士羽已化 처사는 이미 가셨지만

15) 『瀟灑園事實』 卷之七.

16) 『瀟灑園事實』 卷之四.

溪山今宛然 산과 시냇물은 예전 그대로이고  
 河西留秀句 河西가 남긴 수려한 시구가  
 幽壑夜虹穿 그윽한 골짜기에 밤 무지개 되어 뻗치네.  
 <夢遊瀟灑園作一絕覺而記之再賦一篇>17)

第1節은 꿈속에서 瀟灑園을 읊은 시이고, 第2節은 깨어나서 지은 것이며, 第3節은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읊은 것이다. 아득히 먼 瀟灑園의 계곡 물은 졸졸거리며 멀리 靈芝를 피워내는 영험스러운 곳에서부터 흘러드는데 몸뚱이를 대지팡이에 의지한 채 회상에 잠겨 속절없이 푸른 松蘿 위에 걸린 달을 보며 한숨짓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때는 가을이라 다시금 옛 가을의 추억을 반추해 보니 그윽한 흥취가 솟아오른다. 청신한 기운을 일깨우기 위하여 바위틈에 흐르는 물로 머리를 감고 돌계단 위에서 달빛에 말리던 추억이 새삼스럽다. 스승들은 가셨지만 산과 시냇물은 예전 그대로이다. 스승이 주신 뛰어난 시구가 그윽한 골짜기에 밤 무지개가 되었다. 이미 세속에 있으나 세속이 아닌 선경에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은 제봉이 문학을 통하여 탈속의취를 구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두류산(頭流山)에 놀러 가려 할 때 고암(鼓巖)에게 보인 시이다.

日暮黃雲萬里心 해질 무렵 황운에 마음은 만리 밖  
 紫芝歌罷一長吟 자지가 한 곡조 길게 부르고 나서  
 飄然五嶽名山去 오악의 명산으로 표연히 떠나려 함에  
 同好人誰北海禽 나와 친한 벗 그 누구인가 하니 곧 북해의 봉조로다  
 <將遊頭流示鼓巖>18)

해질 무렵 누렇게 익은 전답의 곡식들은 끝없이 펼쳐져 영글고 있는데 商山四皓가 불렀다는 신선의 노래 자지가(紫芝歌)를 소리쳐 부르는 자약함은 곧 북해를 날아 하늘을 가리는 봉조와 하나 된다. 세속적 번뇌와 염려를 떨치고 만 리 밖으로 치닫는 제봉의 시상은 탈속의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제봉이 학문의 여정을 통하여 스승들의 모습을 본받으려한 정서가 시편 구석구석에 묻어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승들의 생경한 가르침을 숙성시키려는 노력과 그분들의 수려한 시구를 따라 배우고자한 자세는 도학적 지기를 연마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속세를 벗어나 선경에 젖어들고픈 탈속의취를 문학적으로 구현 승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3. 宿命的 情操와 自愧意識

생명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따라서 한번 태어나면 영생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죽음이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진실하고 절실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여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그 슬픔과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왔다. 죽음에

17) 『瀟灑園事實』 卷之四.

18) 『瀟灑園事實』 卷之七.

대한 제봉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가 남긴 祭文이나 輓詩들이다.

『霧峯集』未登載 詩文에 소개한 제봉의 만시문을 살펴보면 『霧峯手稿』에 12수,<sup>19)</sup> 소쇄원사실에 제문 1편과 만장 5수,<sup>20)</sup> 棲霞遺稿에 1수<sup>21)</sup>가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세분해 보면 제문 1편과 만장 8수, 그리고 만사 2수, 애사 2수, 만시 6수 등 모두 19편으로 구성된다. 이중 만장과 만시, 만사는 특별히 구분될만한 특성은 없고 다만 명칭이 붙여진 대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애사의 경우 4언 32구로 지어진 것과 5언 26구로 지어진 장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또한 망자의 성분으로 보면 스승을 비롯한 지기로서의 목민관 그리고 이웃한 친지들의 여인이 그 대상이다. 특별히 소나무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하는 시편이 보인다. 물론 『霧峯集』 유집에는 소나무를 언개수(偃蓋叟)라 칭하여 그의 죽음을 위로하는 제문이 실려 있어서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특별해 보인다.

만시의 내용적 구성은 관용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먼저 가신이의 갑작스런 부음에 대하여 놀라고 슬퍼하는 것과 그가 살아생전에 행한 선행을 칭송하는 일반적 모습으로 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란 숙명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있다.

다음은 용산택 만장의 일부분이다.

人生孰不死 사람이 나서 누군들 죽지 않으랴 마는  
此作倍堪悲 이 사람은 큰 슬픔 갑절이나 더하네.  
堂上白頭母 당상엔 아직 백발의 모친이 살아 계시고  
膝前黃口兒 슬하엔 어린 젖먹이 있으니  
還魂它復日 돌아 오라 초혼하는 저 복일에  
瞑目定無時 때도 없이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네 .  
惟有安仁淚 오직 하염없는 눈물만 흘러며  
長懷舉案眉 남편을 공경하던 모습만 오래도록 생각하네.

<龍山宅挽章><sup>22)</sup>

이 시에서 제봉은 죽음을 숙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왕후장상인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죽음을 통한 이별을 인식한다. 더욱이 아내의 죽음은 먼저 노모와 젖먹이에게 가장 큰 고통을 불러온다. 그러기 때문에 큰 슬픔 갑절이나 더하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남편 자신에게는 더 없는 충격일 것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방금까지도 정성을 다하던 아내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으니 눈앞이 캄캄하다. 초혼의 풍습은 하나의 절차에 불가할 뿐이지만 그래도 간절히 돌아오라 부르는 처절한 음성이 온 동네를 휘감는다. 그 臯復聲은 그래서 이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다. 이별의 처절함은 당사자일 경우에는 더 간절한 법이다.

19) 『霧峯手稿』에 실려 있는 작품은 <龍山宅挽章> 3수, <宋濟民妻氏哀詞> 2수, <同挽詞> 1수, <挽鄭德美母氏> 2수, <挽辛正> 2수, <宋珍原縣君挽詞> 1수, <挽宋珍原海客> 1수이다.

20) 『瀟灑園事實』卷之三에 <祭瀟灑公文> 1편, <瀟灑園主人 輓章> 5수가 실려 있다.

21) 『棲霞遺稿』에는 <次剛叔哀息影亭枯松>이 실려 있다.

22) 『霧峯手稿』.

瀟灑先生卦未央 소쇄 선생의 명이 다하지 않았다 짐을 쳤건만  
 中宵忽訝訃音忙 밤중에 문득 급히 알려진 부음 듣고 의심했습니다.  
 龍蛇已覺賢人厄 현인의 재액으로 위태로움을 이미 깨닫고  
 鄉里爭嗟長者亡 향리에선 모두 어른께서 떠나심을 슬퍼합니다.  
 書史淒涼玄晏架 서책은 현안의 서가처럼 처량해 보이고  
 園林蕭瑟鄭公莊 원림은 정공의 별장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人情最有難堪處 인정상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鶴髮慈親病在床 백발 어머니가 병석에 계신 것입니다.

<瀟灑園主人 輓章><sup>23)</sup>

이 시는 양산보의 죽음에 대하여 쓴 만장의 일부이다. 양산보는 그의 스승이자 우애 깊은 친구의 아버지이다. 병환이 깊어지자 시초로 짐배를 뿔았을 때는 선생의 명이 다하지 않았다 했는데 밤중에 문득 급히 알려진 부음은 제봉으로 하여금 참인지 거짓인지 믿기 어려운 비보인 것이다. 걸음을 재촉하여 영전 앞에 다다르니 서책은 평소의 서책이 아니오, 원림은 그전의 원림이 아니다. 서책은 현안의 서가처럼 처량해 보이고 원림은 정공의 별장처럼 쓸쓸하기만 하다. 玄晏은 쑤나라 학자 皇甫謐(215~282)의 호이다.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힘써 전적에 두루 통달하였으니 저서에 高士傳, 帝王世紀, 甲乙經 등 다수가 있다. 선생의 일생이 현안 같은데 정작 가시고 난 뒤의 서가는 현안이 죽은 뒤의 처량함과 다를 바 없다. 鄭公은 宋나라 말 元나라 초기의 隱士인 鄭所南인데 송나라가 망하자 숨어서 농사를 지으며 원나라에 저항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 점이 어찌면 선생과 닮았으나 선생이 계시지 않은 소쇄원은 쓸쓸한 모습일 뿐인 것이다. 더구나 선생은 병석의 노모가 살아 계신 데도 먼저 떠나갔으니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없었을 심정을 위로한다. 산 자의 이별의 아픔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차마 눈을 감지 못할 애처로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봉은 죽음의 숙명 앞에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혼과 기원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제봉은 만사를 통해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별을 슬퍼하면서도 죽은 자의 영혼을 먼저 위로한다. 살아서 이룩한 모든 선행은 죽어서 안주할 양식이요 터전으로 여긴 까닭이다. 모든 이의 죽음 앞에 펼쳐질 또 다른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속세를 떠나 하늘에 오르는 계기로 승화시킴으로써 산 자의 안심과 죽은 자의 진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양산보의 죽음에 받친 제문의 앞부분이다.

공께서는 우리 동남부 지방의 빼어난 정기를 타고나신 강호의 호걸로서 혼탁한 세상을 배회하셨으니 道와 함께 높이 뛰어난 그 뜻을 海鶴과 針鵬처럼 하늘 높이 깃을 날리고 희고 깨끗함은 옥처럼 결백한 마음이었으니 극히 맑은 시냇물 같으며 일찍이 班固와 楊雄을 배우고 國風과 離騷의 문체를 따랐도다. 狗監이 나의 앞에 이르기도 전에 높은 하늘에 오르셨네.

<祭瀟灑公文><sup>24)</sup>

23) 『瀟灑園事實』 卷之三.

24) 『瀟灑園事實』 卷之三. 惟公東南秀氣 湖海人豪 翩翩濁世 與道將翱 昂昂若海鶴溟鵬兮 雲霄一毛 皎皎如冰壺秋月兮 澗澈纖毫 早學班揚 馳騁風騷 狗監之莫爲我先兮 撫凌雲兮.

스승의 품모는 우리 동남부 지방의 빼어난 정기를 타고나셨고, 때를 만나지 못해 강호의 호걸로서 혼탁한 세상을 海鶴과 針鵬처럼 하늘 높이 깃을 날리며 배회하신 것이니 일찍이 班固와 楊雄을 배우고 國風과 離騷의 문체를 배워 학문적 성향도 속세에 뒤지지 않을 훌륭한 행적을 이룩하셨으니, 죽은 이의 영혼은 높은 하늘에 오르셨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별의 아픔을 위로하며 가신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정덕미 모친에 대한 만시의 앞부분이다.

巴臺標舊峻 파대의 우뚝한 꾀대 예부터 높더니  
 姚燕語新愁 요연이 새로운 근심을 일러주네  
 短世朝榮謝 짧은 생애 아침의 꽃이 지매  
 餘穰碩果留 남은 벼대엔 큰 결실을 남겼네  
 幽阡驚弔鶴 그윽한 무덤길엔 조학에 놀래고  
 素紉指眠牛 흰 상어 끈은 우면지를 향하네  
 皓首陶家客 백발의 도가객이  
 空懷剪髮秋 부질없이 머리 잘라 대접하던 때를 생각하네  
 <挽鄭德美母氏>25)

이 시는 정덕미의 모친에 대한 생전의 노고를 깊이 칭송하며 그 덕량은 미물들도 감동시켜 상여가 길지로 향해가서 자손들에게 음덕을 내릴 것이라는 기원을 담아냈다. 진나라 도간은 결단력이 넘치는 진나라의 대장군이다. 그가 젊어서 초상을 치를 적에 두 조문객이 와서 문상하고 돌아가는데 살펴보니 학이 되어 날아가더라는 고사가 있어서 귀한 조문객을 弔鶴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갑자기 집에 매어 두었던 소가 없어졌다. 그러던 중에 마침 지나가던 도사가 아버지의 장지는 소가 잠자고 있는 자리가 좋을 것이라 일러주는 것이었다. 과연 살펴보니 소가 앉아 있는 자리가 명당인 것 같았다. 뒤에 도간이 대장군에까지 오를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고를 사용하여 망자의 후손이 크게 융성하리라는 기원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산자로서 가신 이에게 평소에 입었던 인간적 관계를 회상한다. 정덕미 모친이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머리를 잘라 대접하던 그 정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승 양산보의 제문에서도 같은 맥락의 기원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산 자의 처지에서 가신 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자괴감을 피력한다.

아! 아득히 먼 인간 세상에 이 운명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공(公)의 두 아드님은 향간에서 벗어난 영재로서 형은 어질고 아우는 건강하오니 아마도 가문의 명성을 실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반드시 한번 보시겠지만 죽은 자는 편안하여도 사는 자는 고생입니다. 강한 바람은 차갑게 몰아치고 끝없이 흘러가는 강한(江漢)처럼 우리 후세의 인간들은 부끄럽고 또 근심스럽기만 합니다. 공의 모습을 본받아 따를 길은 없고 부질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읊니다.

<祭瀟灑公文>26)

25) 『霧峯手稿』.

26) 『瀟灑園事實』卷之三. 嗚呼 悠悠人世 此數誰逃 公有二嗣 江表英髦 昆令季強 庶幾不墜乎家聲兮 公必一視乎死逸而生勞 高風凜冽 江漢滔滔 我來後人 慚赧有切 儀刑莫追 空盡悲號.

제봉의 비통함이 묻어나는 제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영전에 올리는 호소는 증명과 계명 두 아드님의 장래와 가문의 미래가 훌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가시는 길 잘 가시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세의 인간들은 부끄럽고 또 근심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선생의 모습을 본받아 따를 길 없음에 비통한 마음을 갖는다. 제봉은 이점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 이러한 자괴감은 만시의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각성하면서 가신 이의 명성을 본받아 뒤를 따를 것이라는 다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제봉의 만시는 이별에 대한 숙명의 인식과 가신 이의 영혼을 위문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 가문에 서광이 있기를 아울러 기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더 나아가 평소의 덕행을 찬양하고 그 후덕한 공적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쳐 냄으로써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만시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 IV. 結語

제봉 고경명은 임란 때 순국한 지사로서만이 아니라 옹혼하고 빼어난 기상을 드러낸 시문들에 의해 조선 중기 문단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문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봉이 남긴 수많은 시문들 중 『霧峯集』에 수록되지 않은 未登載 詩文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작품의 주제적 성향을 고찰해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제봉 문학 연구가 오로지 『霧峯集』 소재 작품들만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통해 제봉 고경명의 문학 세계를 온전히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霧峯集』 未登載 詩文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霧峯集』 未登載 詩文의 수는 134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들은 제봉수고에 실린 총 116편 중 『霧峯集』에 미수록된 작품 74편과 기타 제봉이 친지들과 교우한 시문으로 다른 문인들의 문집에 수록된 작품 6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霧峯集』 소재 작품 총 1,248편의 10%가 넘는 수로서 제봉의 문학적 면모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이 『霧峯集』 未登載 詩文에 드러난 작품들의 주제적 성향을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해 보았다. 첫째, 현실적 갈등과 애민정신이다. 『霧峯集』 未登載 詩文들은 제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현실과의 끊임없는 갈등, 현실적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층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치열하게 형상화 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학적 지기와 탈속의취이다. 『霧峯集』 未登載 詩文들은 한편으로는 유학적 선비로서 도학을 성취하고자 하는 끈끈한 선비정신과 한편으로는 속세를 벗어나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자 하는 탈속의 의취를 함께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숙명적 정조와 자괴의식이다. 『霧峯集』 未登載 詩文들 중 만시, 만장류들은 제봉의 죽음에 대한 숙명적 인식과 망자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기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의 자괴의식을 미적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는 『霧峯集』 未登載 詩文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제봉의 문학세계 이외의 또 다른 특징을 밝혀냄으로써 미진하나마 제봉 문학의 전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霧峯集』 未登載 詩文과 『霧峯集』에 수록된 시문들과의 상관관계, 『霧峯集



』未登載 詩文 및 이들을 포함한 제봉 문학 전체의 문학사적 의의 등에 대한 논의는 더 세심하고 치밀한 연구를 위한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 문헌

『고봉집』

『서하당유고』

『석천집』

『소쇄원사실』

『송강집』

『송천집』

『霧峯手稿』

『霧峯集』

權純烈, 『송천 양응정의 시문학 연구』, 월인, 2002.

朴銀淑,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월인, 2004.

朴俊圭, 『霧峯 高敬命과 息影亭 題詠』, 『春岡柳在泳博士 華甲紀念論叢』, 1992.

李鍾燦, 『高敬命論』, 『朝鮮朝漢詩作家論』, 동악어문학회, 1993.

李權宰, 『제봉고경명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대학원, 2002.

<논문투고일 : 2004.6.30.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 <Abstract>

### A Study On The Jebong's Literature Which Were Left Off Jebongjib

Lee, Kweon-jae

Jebong, Go Gyeong-myeong(1533-1592) was a great poet and a writer as well as a patriotic martyr in the Chosun dynasty. He should be regarded as a poet with plenty of poetical emotion, a good writer of majestic spirit and virile style of writing, a true Confucian scholar with the whole personality as well. This study investigated Jebong, Go Gyeong-myeong's literature which were left off Jebongjib.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making perfection the past studies, because they were limited on the works registrated in Jebongjib.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ed all works which were left off Jebongjib. In the second place, it analyzed the thematic characteristics of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total amounts of works which were left off Jebongjib are to 133 poems and 1 prose in all. They were works that Jebong had given to his friends or Jebong had left as his own handwriting.

These work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according to the theme;

- 1) The emotional conflict about the reality and the spirit of affection for the people.
- 2) The moral integrity and the unworldly disposition.
- 3) The fatal sentiment and the sense of self-shame.

This study made the significant progress in paying attention to the works which were unnoticed in the past studies. It could be helpful to bring out Jebong's literature entirely. More precise research on the correspondence of those results with the content, the comparison of it with the other works of Jebong, the status and the value of them in the literary history, therefore,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 Jebongjib, Go Gyeong-myeong, Jebong's literature